내년 도내 자율학교 수 줄인다

전북교육청, "지정 · 운영 심의 강화해 '보통' 미만 학교 탈락시킬 것"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의를 강화해 평가 점수가 낮은 학교는 지정·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계획'을 확정해 최근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초·중·고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 1백3교에 달하는 자율학교 수를 2018학년도부터 줄여나가기로 하고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학생모집, 예산지원, 교원초빙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일부 자율학교는 관행적으로 지정받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 자율학교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2009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정된 자율학교는 학생 모집·선발과 관련된 특혜도 없어졌다.

그럼에도 도내에는 초등학교 34교, 중학교 29교, 고등학교 40교 등 총 1백3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교는 56교(초 18교, 중 15교, 고 23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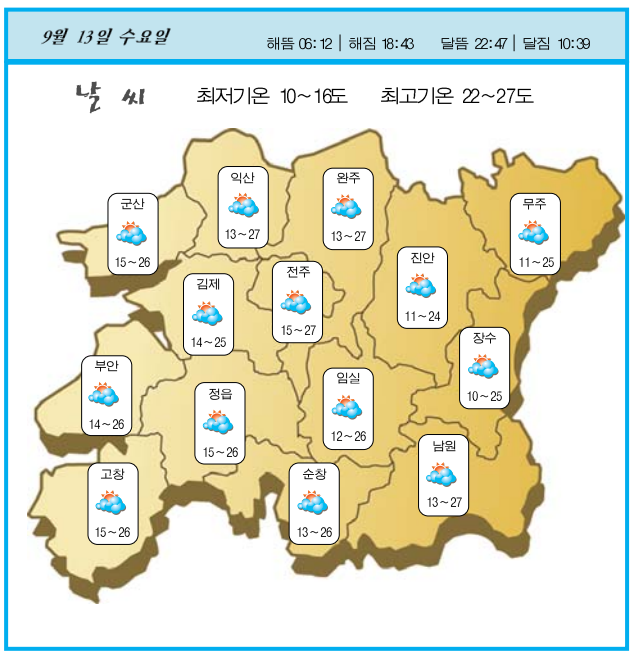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자율학교 재지정 또는 지정·운영 신청을 한 학교를 탈락시킨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대폭 강화해 탈락하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다"며 "내년도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학년도 자율학교 지정·재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10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신청서류 검토와 심사계획 등을 수립한 뒤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9일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대회 개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전주시 사회복지대회'가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병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전주 바울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김승수 시장이 사회복지 유공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홍봉근 교수

세계 학회 최우수논문상

원자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연구 호평

전북대학교 홍봉근 교수가 최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열린 제5차 유럽재생에너지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세계 각국에서 16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회에서 홍 교수는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14MeV 고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해 원자력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동시에 에너지도 생산하는 핵융합-핵분열 혼성원자로 개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조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지하처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봉근 교수는 핵융합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30여 년간의 경력을 지닌 세계적인 전문가로, SCI급 국내·외 저널에 100여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총 사업비 2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인 ITER 국제기구의 TBM 프로그램위원회 의장, 국가핵융합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정해은기자

미세먼지 · 라돈 걱정 없는 송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풍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개선하는 SK텔링크(대표이사 윤원영)의 학교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교실 내부의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오염된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미세먼지가 차단된 신선한 외부의 공기를 공급하여 교실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또한 수업시간 중에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CO2) 및 유기화합물(VOC)을 관리하여 양질의 실내공기 상태를 자동으로 유지한다.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개선하는 SK텔링크의 학교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설치하였다.

미세먼지, 라돈은 폐암 등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성인보다 어린 학생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하나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 중에 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실 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었다.

/정해은기자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가동'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각종 자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도교육청은 양용모 도의원, 전주시사회경제지원센터 안수정 국장,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송명성 센터장,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김주영 대표 등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전라중 교장, 양현고 교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방안 ▲학교협동조합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8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전북대동물질병진단센터, 야생동물진단기관 지정

전북대학교 동물질병진단센터가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질병진단센터는 이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진단 검사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 동물질병진단센터는 2011년 6월 설립되어 전국의 가축 및 반려동물의 질병 진단 서비스를 수행해 오면서 축산 농가와 생산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야생동물질병 진단기관 지정은 동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 경험과 실적 및 시설·장비 보유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동물질병진단센터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